여수 거문도 해풍쑥 '농한기 효자네'

미네랄 풍부 '힐링푸드' 입소문 주문 폭주

200여 가구 연간 430t 생산 10억원 소득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최남단 여수 거문도에서 봄의 전령인 해풍쑥 재배 작업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해풍쑥 재배 농가들은 주문 문의가 폭주하면서 애초 지난주 말 채취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일정을 연기했다.

푸른 빛깔, 고운 향내로 봄을 알리는 해풍쑥은 지리적 표시 제85호로 등록된 여수 명품 특산물로, 힐링푸드로 손꼽히고 있다.

여수시 거문도해풍쑥영농조합은 21일 "이르면 이번주부터 43ha에 걸쳐 자라난 해풍쑥 채취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부 재배 농가에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재배에 나서기도 했다.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거의 없는 온화한 기후 덕에 거문도에는 진도나 제주도 등지보다 한 달 빨리 봄이 찾아와 국내 최대 해풍쑥 생산지로 손꼽히고 있다.

해풍쑥은 풍부한 일조량과 화강암계의 건강한 토양 등 거문도만의 천혜의 지리적 특성으로 품질이 좋고, 청정지대의 소금기 섞인 해풍과 해무로 인해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며, 고유의 향이 진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960년대부터 자생 쑥을 농가에서 재배했고, 1980년대에는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문도 일대 830여 어가의 20% 수준인 200여 가구가 거문도 쑥을 재배하고 있다. 농한기의 효자작목으로 급부상하면서 연간 430t 이상을 재배, 10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가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거문도해풍쑥영농조합에서는 쑥을 수집한 날 밤에 서울, 대구 등지의 농산물시장에 직접 출하하고 있어 신선도와 상품성을 높이고 있다.

거문도 서도에서 해풍쑥을 재배하는 이진자(여·53)씨는 "문의전화가 너무 와서 재배를 서두르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쑥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 퇴비를 지원하고 늦은 겨울에서 봄까지만 출하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축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에는 쑥 나물과 쑥으로 만든 가공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고도 지었다.

지난 19일 주문량이 밀려들자 예정보다 일찍 해풍쑥 수확에 나선 여수 거문도 농민들.

이와 함께 현대화한 가공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힘을 쏟으면서 해풍쑥차, 떡 가공용 냉동쑥, 건조쑥, 쑥 분말, 쑥빵, 쑥음료, 쑥세정제 등도 생산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거문도 해풍쑥은 인체에서 합성이 불가능한 필수아미노산인 히스티딘 등 7종을 다량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결과 밝혀졌다"며 "해풍쑥과 관광산업을 접목해 힐링체험시설과 관광체험학습 등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이순신 '명량대첩' 영화로 만든다

전남도-(주)빅스톤픽처스 '명량-회오리 바다' 제작 업무협약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단 13척의 배로 왜선 133척을 물리친 불멸의 해전사(海戰史) 명량대첩이 영화로 제작된다.

전남도는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주)빅스톤픽처스와 '명량-회오리 바다' 영화 제작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박준영 도지사, 김한민 빅스톤픽처스 대표 겸 감독, 이성웅 광양시장, 박철환 해남군수, 서복남 순천부시장, 영화제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명량-회오리 바다'는 해남·광양·고흥 등 전남지역에서 80% 이상을 촬영하고 CJ엔터테인먼트가 150억 원을 제작 지원하는 국내 블록버스터급 영화다. 2011년 7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최종병기 활'을 제작한 순천 출신 김한민(45)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최민식·류승룡·조진웅·진구·이정현 등 국내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투입돼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각각 2억원, 1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또 영화사는 전남도민을 위한 특별시사회를 약속하고 엔딩크레딧, 포스터나 각종 광고에 '전라남도' 로고를 삽입하기로 했다.

전남도 이승옥 관광문화국장은 "이번 영화를 통해 명량대첩의 중요성과 민초들의 희생이 부각되는 걸작이 탄생해 전남의 이미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영화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외계층 문화욕구 채워준 예울마루

GS칼텍스, 뮤지컬' 맘마미아' 초·중생 400여명 초청 관람 지원

GS칼텍스(대표 허진수 부회장) 예울마루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관람 지원으로 지역사랑을 펼치고 있다. GS칼텍스 예울마루는 지난 19일과 20일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에 지역 내 여성복지시설의 소외여성 60여명을 초청했다〈사진〉. 이와 함께 전남문화예술재단과 함께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학생 400여명이 문화바우처를 통해 맘마미아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ABBA)'의 대표 히트곡들로 만들어져 영국·미국·일본 등 전 세계 46개국 300개 주요도시에서 4500만 명이 관람한 초대형 공연작품. 이번 예울마루 공연에는 한국의 대표 뮤지컬 배우인 최정원, 전수경을 비롯해 가수 이현우 등이 출연해 화려한 볼거리와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GS칼텍스 예울마루는 GS칼텍스의 대표적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 설립됐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들이 예울마루의 자체 기획 공연 및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나눔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GS칼텍스 예울마루 이승필관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관람지원과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해 가겠다" 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순천 작년 관광객 487만명 급증

순천만 갈대축제 등 인기 전년보다 14% 늘어

순천시는 21일 "지난해 순천시 관광객이 487만 명(내국인 480만명, 외국인 7만명)으로 2011년 426만명보다 14% 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순천만,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송광사, 선암사 등의 방문객을 합계해 산출한 것으로 이 중 순천만 방문객이 235만 명(내국인 231만명, 외국인 4만명)으로, 시 전체 관광객의 절반을 차지했다.

드라마촬영장 입장객도 2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나 늘었다.

순천시는 이처럼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로 여수엑스포 영향 및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순천만 등 생태관광에 대한 선호,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낙안읍성에서 개최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순천만 갈대축제의 성공개최도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로 봤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손색없는 생태·문화·체험 만족 관광에 힘쓰겠다면서 특히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올해는 정원박람회장과 연계된 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해 체류형 관광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수 양식어류 조기출하·판매 유도

市, 참돔·감성돔 등 저수온 피해 예방 현지지도

여수시는 21일 "저수온 등 겨울철 재해로부터 양식 어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온에 대비한 조기 출하와 판매 유도 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지역 어류 양식장은 돌산·남·화정·삼산면 등 185어가로, 모두 1091만1000미의 참돔과 감성돔 등을 양식하고 있다.

시는 이들 양식 어가들을 겨울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출하 가능한 양식어류 등은 조기 출하나 판매를 유도하고, 수온에 약한 돔류의 먹이를 중단하거나 조절하록 했다. 또 가두리 덮망 설치와 그물 깊이 조정, 수온이 높은 어장이나 월동 가능해역으로 이동, 어촌계장과 어업인 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상황 유지 등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앞서 시는 어업인 지도 공문을 10차례에 걸쳐 발송하고 64차례에 걸쳐 선상방송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저수온과 한파 등에 대비해 지난해 말부터 해상가두리 양식장 현지 지도와 점검 등 어업농가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기상청 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연락 유지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 40여 양식어가는 저수온에 대비해 어류(돔류) 83만6000미를 조기 출하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화순소방서 483억 '경제손실' 막았다

지난해 화재예방·119 구조 활동 성과

화순소방서가 지난해 화재예방과 119 구조·구급을 통해 483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소방서는 21일 "화재,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통해 예방한 사회적 손실이 화재의 경우 140억원, 구조·구급은 34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화순소방서는 지난해 관내에서 110건의 화재가 발생, 7억9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940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다. 그러나 각종 예방과 신속한 출동 등으로 36억원의 운영비에 비해 13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문태휴 화순소방서장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까지 더하면 소방서의 화재 및 구조 구급 활동은 이보다 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사회적 불안요소를 없애는 안전 지킴이로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